



한국고분자학회
43대 회장 김 영 섭

창립 50주년, 영광의 반세기를 넘어 미래 100년으로 도약합니다.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영섭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뒤로하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1976년 창립 이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선배 제현들의 헌신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쌓아 올린 우리 고분자학회가 ‘창립 50주년’이라는 위대한 이정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의 눈부신 성장을 자산으로 삼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산업계에 몸담아온 경영인이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IUPAC-PSK5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학회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Beyond the past 50, toward the next 100’이라는 슬로건 아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고분자 과학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고분자 과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둘째, ‘실용’과 ‘혁신’이 공존하는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연구실의 우수한 성과가 산업 현장의 기술력으로 이어지고, 산업계의 난제가 학계의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계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회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학회가 대한민국 소재 산업 발전의 강력한 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한 ‘열린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학회의 미래는 신진 연구자와 학생회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선배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과학자와 지역 지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소외됨 없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포용적인 학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학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창립 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자세로,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2026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빌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사)한국고분자학회 제43대 회장 김 영 섭